구역장 세미나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말씀: 마태복음 21:1-7
- 찬송: 213장, 216장

아이스브레이크 타임 (내가 대통령이라면)

만약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무엇이든지 한 가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내가 만들고 싶은 정책은 _____ 입니다.

그 이유는 _____ 때문입니다.

본문내용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에 관한 성경의 4가지 지침을 얻습니다.

첫째, 순종은 잘 믿어 지지 않아도 일단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 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나귀와 나귀새끼가 있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있더라고 해도 그것을 풀어 그저 가져오면 절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그 옆에 있을 때 현장에서 잡혀서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귀들의 주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하면 주인이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계획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 하십시오.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며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포도주 기적, 나아만 장군의 치유 기적, 실로암못 순종 치유 기적(맹인)

둘째로, 순종은 자기의 것을 드리면서, 포기하면서, 손해 보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귀들의 주인의 순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자기 나귀와 나귀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하니 거저 드리는 것입니다. 나귀와 나귀새끼는 어쩌면 그 주인의 재산목록 1-2번일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조건 없이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주인이 메시야를 대망하던 사람이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거나 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 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께서는 기적의 역사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순종은 준비되지 않아도,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귀새끼는 누가 타본 일이 없었습니다. 즉 길들여 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에 누군가 탄다면 등에 앉은 사람을 떨구어 트이려고 몸부림 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리로 저리로 갑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되었고 주님을 태우고 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나귀 새끼는 1) 사람을 태울 준비가 되지 않았고, 2) 자원하는 마음도 없었고, 3) 누군가를 태우는 일이 즐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예1) 마리아 : 예수님을 낳을 전혀 준비도 되지 않았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임신된 것이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임으로 순종.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고, 예수님의 모친이 되셨다.

예2) 사무엘 : 어릴적에 성전의 불을 맡음.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의 서원으로 바쳐졌는데 본인이 원한 것은 아니었었지만 순종 했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심.

예3) 모세 : 가고 싶지 않은 애굽 땅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게 됨.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순종은 다 준비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들 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때 그 때가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 자존심을 내려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폼나지 않는 나귀 새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은 그러므로 내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영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며 스스로 낮춘 그들을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복주십니다.

2017년 한해가 지나가며 2018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순종을 명하십니다. 누구에게는 평신도 지도자, 또 누구에게는 남/여전도회 임원, 구역장, 교사 등으로, 또 여러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말로 주님의 음성에 답변하고 있습니까? 혹시 순종하기에는 주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순종하기에는 내 것을 포기하고 손해 볼 수 없어서, 순종하기에는 준비되지 않아서, 순종하기에는 나의 영광/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참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생을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과 폭력 가운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 권세 마귀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

은혜로운 찬양으로 (216장 - 성자의 귀한 몸)